

[나와 《길림신문》]

◎ 박영옥

통신원에서 작가까지, 내 삶에 스민 30년의 빛

올해 《길림신문》 창간 40돌이라는 큰 생일을 맞으면서 그간 《길림신문》과 맺어진 인연을 돌이켜보면 무한한 감사와 응원에 힘입었다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

내가 제일 처음 《길림신문》과 만난 것은 1989년도 가을이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길림신문》이 눈에 띄었다. 그때 《연변일보》에 신문원고를 쓰고 있었던 나는 그 신문을 들고 이리저리 훑었는데 기자가 아닌 통신원들의 글이 실린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신문의 글들이 독자들의 구미에 맞았고 취미성도 깊었다. 나는 원래 이야기글을 쓰기 좋아하다 보니 앞으로 내가 쓰는 글들이 많이 실릴 것 같았다.

(을지, 나도 이 신문에 투고해야겠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내가 살고 있던 안도현 만보향병원에 가서 한산부인과 의사를 취재했다. 사람들한테서 그 의사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은 것을 여러번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해 11월 25일, 〈그저 본분을 지켰을 뿐인데요〉란 제목의 나의 첫 인물통신이 《길림신문》에 실렸다. 그 글이 나에게서는 나래가 돋친 격이었다. 그 이듬해인 1990년부터 나는 생활의 미감이 넘치는 이야기에 시선을 돌리고 낮에는 출근하기에 저녁이면 손전지를 켜고 취재 대상들을 찾아갔다.

그해에 〈이름 없이 피는 꽃〉, 〈뽕스 안에서 벌어진 오라〉, 〈한 로인의 추구〉 등 다양한 소재의 글을 써서 신문에 보냈는데 써보낸 11편이 몽땅 신문에 실렸다. 여기에서 재미를 느낀 나는 그 이듬해에도 그냥 써서 보냈는데 적지 않게 실렸다. 그것이 나한테는 무궁무진한 신심과 희망이 되었고 글 쓰는 재미로 세월과 달리기를 하노라니 생의 무늬가 별처럼 반짝임을 느꼈고 날로 원숙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날 길림신문사에서 편지가 왔

다. 급히 뜯어보니 김부심기자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 내용인즉 자신은 아버지를 따라 만보향 금화촌에 하방호로 내려가서 몇년간 살았다고 하면서 만보중학교 때 나와 한학급은 아니지만 한학년이였다고 했다. 그런데 난 조금도 인상이 없었다. 김부심기자는 언제 연길에 오면 꼭 신문사로 찾아오라고 간절히 부탁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 뜨거운 열정에 감동된 나는 후에 일보러 연길에 갔다가 김부심기자를 만나려고 길림신문사를 찾아갔다. 학교에서 본 기억이 전혀 없어서 어느 기자분과 문의하는데 저쪽 책상에 앉아있던 웬 남자가 환한 기색으로 걸어오더니 내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다.

“동창생 반갑구만. 나의 두번째 고향이나 다름없는 만보에서 우리 신문에 글을 써보내는 사람이 있다니 참 기특하더군. 더구나 동창생이 통신원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이요.”

그는 몹시 반가워하며 오후에 예술극장에서 공연이 있는데 내 관판표까지 얻어놓았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그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이튿날 들어오던 예술극장에 들어가보게 되었는데 안의 구조와 장식에 눈앞이 황홀해났다.

글을 좀 썼다고 그렇게도 반겨주고 그렇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고무격려해주는 그가 어찌도 고마웠는지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았다.

1997년 안도에 아동문학협회가 설립되어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아동문학 창작에만 몰두하고 신문글은 적게 쓰다 보니 한동안은 《길림신문》과 더 가까이하지 못했다.

2020년에 나는 자서전 《비운의 마라토너》를 출판하게 되었는데 굴곡적인 나의 인생사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길림신문》 홍길남 사장님한테 전화로 신문에 몇편이라도 실어줄 수 없겠고 문의했는데 먼저 글을 보내달라고 하셨다. 며칠 후 홍길남 사장님한테서 회답이 왔



저자 박영옥

데 전부는 못 실어도 연재로 어느 정도 실어주겠다고 했다. 순간 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몰랐다.

2020년 6월 20일부터 〈열룩진 운명의 시작〉, 〈내가 찾는 은인〉, 〈계몽스승〉,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 〈가슴 뭉클한 모성에〉, 〈고마운 은사님〉, 〈내가 만난 남편〉, 〈엄마〉 등 이렇게 8편의 수기가 연재로 《길림신문》에 실렸다. 내용에 사진까지 배합해서 실었다. 그때 편집을 맡은 홍옥선생님은 자주 나한테 연락을 하면서 정성스레 심혈을 기울여 편집했는데 나보고 이렇게 수기가 연재로 실린 적은 처음이라고 알려주었다. 아,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었다. 겹겹이 아픔을 덧칠한 몸으로 걸어오다 보니 힘들었던 심령이 세척되는 느낌이었다. 어찌 단지 글을 실어주었다고만 보라? 그것은

한 불우한 여인에 대한 배려이고 긍정이었다. 지금도 그 수기들을 실은 신문을 볼 때면 얼굴조차 모르는 홍길남 사장님의 그 응원이 감사하고 홍옥선생님의 수고에도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나한테 감격스런 이야기는 이뿐만 아니었다. 2021년 7월 길림신문사에서 주최한 ‘사랑 + 릴레이’ 계열 공익프로젝트 행사에서 나의 작품 〈시아주버님을 널리 자랑합니다〉가 금상을 수상하여 반듯한 영예증서까지 타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길림신문》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늘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길림신문》 때문에 내가 더 높이, 더 멀리로 날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길림신문》을 더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숨겨진 힘의 저수지를 활용하여 좋은 글들을 더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싶을 뿐이다.

[전망대]

연변팀 첫 원정승 노려라!

6월 14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불산시남해체육중심체육장에서 불산남사팀과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2승3무6패로 9점을 기록하고 현재 갑급리그 14위를 지키고 있는 불산남사팀은 연변팀에 비교적 익숙한 팀이라 할 수 있다. 올급리그를 거쳐 함께 갑급리그에 승격한 팀이고 갑급리그 상호 전적은 1승1무2패로 불산팀이 약간 앞서고 있다.

불산남사팀은 올해 6라운드의 홈경기를 치렀는데 1승3무2패의 성적을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대전한 팀들과의 성적을 대비해보면 연변팀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불산남사팀은 현재 14위로 강등권과는 2점 차이, 반드시 한차례 승리로 강등권을 벗어나려는 팀이고 이 같은 형세하에서 필사의 노력으로 중경동량통 같은 강팀과도 불꽃 튀는 접전으로 1:1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점을 보면 호락호락 승리를 점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온다.

불산남사팀의 진영을 살펴보면

외적 용병 니콜라스(7번, 공격수)와 진국항(6번, 미드), 화명찬(16번, 미드) 등을 새로 영입한 외 대부분은 지난해의 주력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오(17번, 수비수)를 제외한 용병들의 발휘는 너무 수수하다.

불산남사팀의 가장 안정된 부분은 마리오, 장흥박(13번), 손효빈(29번), 라흠(4번) 조합의 수비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 나이가 30세가 넘기에 체력 방면에서 큰 기록이 생긴다.

불산남사팀의 가장 불안한 곳은 바로 중원이다. 진국항, 화명찬 등이 움직이는 중원이 항상 실점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중원에서의 배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원정에서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연변팀과 강등권을 벗어나려는 불산남사팀의 대결은 결국 중원 대결이 아닐까 한다.

최근 경기들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인 황진비, 포부스가 상대 수비선을 휘젓고 김태연, 박세호, 허문광, 리봉 등이 중원에서 매복기습 작전을 벌인다면 불산남사팀을 상대로 첫 원정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태국기자



제11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홈장 5연승을 경축하고 있는 연변팀의 감독진과 선수들 / 김파기자

길림성 대학입시 채점사업 가동

길림성 2025년 보통대학입시가 6월 9일 순리롭게 끝났다. 현재 각 과목의 스캔채점사업이 이미 룽속 가동되어 6월 25일 수험생 대학입시 성적을 공포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성정무씨서비스데이터관리국 ‘길사판’(吉事办) 대학입시 서비스 전문구역, 길림성 보통대학입시 수험생 씨서비스 플랫폼(https://gk.jlceea.com.cn)과 길림성교육고시원 공식계정을 통해 2025년 대학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사전차수(批次) 대학교 지원 작성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 본과차수 대학교 지원 작성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작성 기간 길림성은 길림성 보통대학입시 수험생 씨서비스 플랫폼에 ‘지원 작성 보조 참고 시스템’을 개통하여 무료로 광범한 수험생들을 위해 데이터 조회와 보조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교육고시원은 성적 발표, 지원 작성, 대학입시 합격 등 중요한 단계에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각종 학생모집 정보를 획득하고 각종 학생모집 시기행위를 식별하며 ‘AI 시험 감독 부정행위 발견’, ‘성적 고치기’, ‘특수 경로’, ‘내부 데이터’, ‘계획의 지표’, ‘입학 대리 취급’ 등 허위정보를 절대 믿지 말 것을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 길림일보

교육부 :

전국 각급 각 부류 학교 도합 47 만개

교육부는 6월 11일 《2024년 전국 교육사업 발전 통계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국 각급 각 부류 학교는 도합 47만개, 학력교육 재학생은 28,646.5만명, 전임교원은 1,885.1만명이다.

학령전 교육 유치원 순입학률은 92%에 달하고 9년 의무교육 공교육률은 95.9%, 고중단계 순입학률은 92%, 고등교육 순입학률은 60.8%에 달한다.

전국에는 도합 25.33만개의 유치원이 있고 의무교육단계 학교가 도합 18.84만개, 일반고중이 1.58만개, 중등직업학교가 6,862개 있다. 의무교육단계 학생모집수는 3,465.39만명이고 재학생은 15,970.54만명이며 전임교사는 1,073.89만명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일반소학교가 도합 13.63만개 있고 초급중학교가 도합 5.21만개(직업초중 4개 포함) 있다.

공보에 따르면 고등교육 방면에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가 도합 3,119개, 그중 일반본과학교 1,257개(독립학원 154개 포함), 본과 수준 직업학교 51개, 고등직업학교(전문대학) 1,562개, 성인고등학교가 249개에 달한다. 연구생을 양성하는 과학연구기관은 233개이다.

전국 각종 형태의 고등교육 재학생 총규모는 4,846만명이다. 일반본과학

교의 평균 규모는 17,428명, 본과 수준 직업학교의 평균 규모는 18,362명, 고등직업학교(전문대학)의 평균 규모는 10,275명이다.

공보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대학 및 고등직업학교의 본과와 전문대 재학생은 도합 3,891.26만명이고 졸업생은 1,059.38만명에 달한다. 재학중인 연구생은 409.54만명, 졸업 연구생은 108.36만명에 달한다.

/ 인민넷

